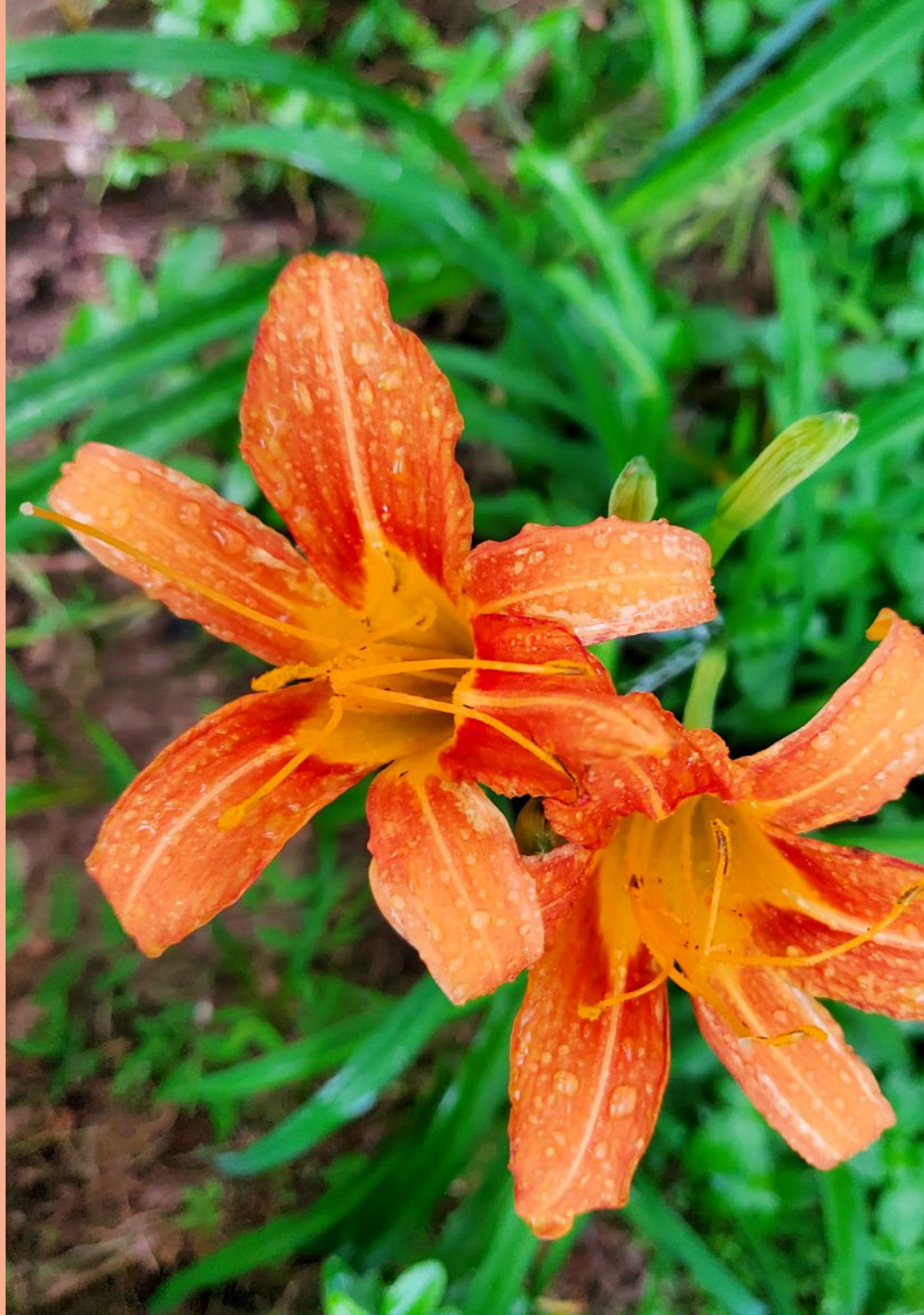


2022

2022.07.15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Psalm 121:1-2

01



HIS Message

02



Devotion

03



HIS Spotlight

04



Gener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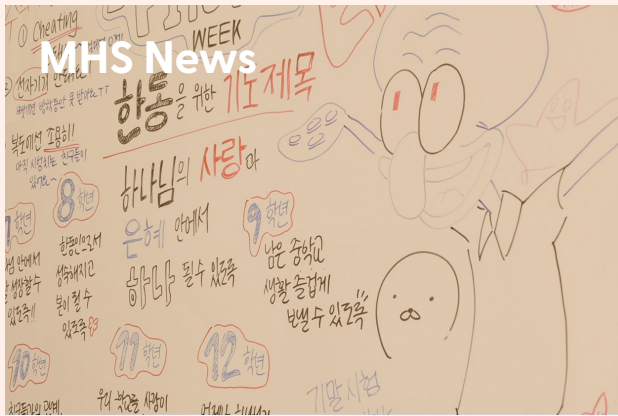
05



09



06



10



07



11



08



HIS Message



01

By 백하민 | 교장
Dr. Hamin Baek · Principal

진실한 기독교 학교

Authentic Christian School

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제가 주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기 원하시는지요?” 그러자 거의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 “진실한 기독교 학교”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어서 “그렇다면 진실한 기독교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진실한 기독교 학교란 완벽한 기독교 학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듯이 어떤 기독교 학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면서 좌절하고 분노하며 상처를 주거나 받곤 합니다. 저는 진실한 기독교

The first question I asked the Lord upon my appointment as principal was this: “Lord, what kind of school do you want our school to be?” And almost immediately, the phrase “an authentic Christian school” came to my mind. I continued to ask, “Then what kind of school is an authentic Christian school?” I continue to meditate, pray, study, and have conversations with others on this. I would like to share some of them today.

First of all, an authentic Christian school does not mean a perfect Christian school. No Christian school is perfect just as no church is perfect on this earth. But we often forget this and get frustrated, angry, hurt or get hurt as we expect or demand perfection from ourselves or others. I believe that an authentic Christian school is a school where its members

학교란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며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되 자기 자신과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격려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진실한 기독교 학교는 교회는 아니지만 반드시 진실한 기독교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 교육이라는 특수한 사명이 있는 기관으로서 교회와 다른 학교로서의 조직, 시스템, 인적자원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학교는 진실한 기독교 학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진실한 기독교 공동체, 진실한 기독교 학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개인이 예수 믿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크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학교로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진실한 기독교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 이미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보다 더 진실한 기독교 학교, 보다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충만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함께 꿈꾸고 대화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선명하게 깨닫고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ray and work tirelessly, but wait for and encourage themselves and their co-workers as they dream and build a school that is pleasing to God.

Second, an authentic Christian school is not a church, but must be an authentic Christian community. A Christian school is an institution with a special mission of educating students in a Christian way at a school setting, and needs an organization, systems, and human resources of a school, different from those of a church. But even with all these things, the school would not be an authentic Christian school if it is not an authentic Christian community.

So, what does it take for our school to become an authentic Christian community or an authentic Christian school? I believe, first of all, that our school must be founded on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which is spoken throughout the Bible and proclaimed and taught by Jesus Christ. This gospel is not just the story of an individual believing in Jesus and going to heaven from this sinful world, but the grand story of a kingdom ruled by God that God planned when he created the world and wants to be restored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mission of our school is to nurture agents for the kingdom of God. So only when all faculty and staff, parents, and students understan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correctly and live as disciples of Christ, will it become an authentic Christian school.

In fact, we already have many of these going on in our school. I hope that all HIS members continue to dream, talk and advance together in order for HIS to become a more authentic Christian school and a school filled with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I ask you to pray that we can clearly understand the path that the Holy Spirit leads us and walk boldly together.

Devotion

A person's hands are shown pouring water from a small brass pitcher into a larger brass bowl. The scene is set on a dark, textured surface, possibly a table or floor. In the background, two lit candles are visible: one in a simple brass holder and another in a more ornate, multi-tiered white holder. The lighting is warm and soft, creating a serene and contemplative atmosphere.

By 박성민 | 중고등 성경 교사

Mr. Sungmin Park · MHS Bible Teacher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Love to the End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한복음 13:1).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라는 표현은 여러가지 뜻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분량으로 사랑하셨다’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분량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진정 ‘사랑의 끝판왕’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새 계명’(34-35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the love chapter)’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예수님의 끝판왕 사랑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13장 또한 또 다른 ‘사랑장’으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사역하느라 지쳐 앉아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 당시 고대근동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Jesus, knowing that His hour had come that He would depart out of this world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 (John 13:1) ‘Jesus loved his disciples to the end’ can have many different implications, but among which it can mean that ‘Jesus loved his disciples to the fullest measure.’ The fullest measure of his love was, of course, ultimately demonstrated through Jesus who died on the cross for those whom he loved. John 13 begins with ‘Jesus loving to the end’ and ends with Jesus giving out ‘a new commandment of love’ (v. 34-35), showing the great emphasis John 13 is making here. 1 Cor 13 is often known as ‘the chapter of love,’ but I think John 13 depicting Jesus’ fullest measure of love should also be treated the same.

Jesus loved his disciples so much that he put a towel around his waist and took water from the basin to wipe the dirty feet of his disciples, who sat exhausted all day working with Jesus.

지방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집에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라 할지라도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 (막 10:45) 노예의 위치까지 스스로 내려 가셔서 그들의 발을 하나 하나 닦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좋은 신발을 신고 잘 포장된 길을 걸을 수 있기에 아무리 오래 걸어도 먼지가 발에 묻지 않지만, 그 당시는 고작해야 샌들을 신고 먼지가 가득한 길을 걸어야 하는 일이 많았기에 하루 종일 걷고 난 후에는 발에 흙먼지가 가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들어 온 후 물로 발을 씻으면 구정물이 한가득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정물이 나오는 더러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 하나 닦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며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다혈질 베드로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께 염치 없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어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이 없느니라.”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미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사랑(주님의 발 씻음, 우리의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원칙의 한 면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받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염치 없이 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기에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염치없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겸손히 사랑을 구하는 자들을 우리는 진정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 was a custom, at that time, of the slave to bring water for guests to wash their feet when they come to visit. But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wash the dirty feet of others, even for a slave. However, Jesus humbled himself like a servant to serve his disciples (Mark 10:45), and he wiped the dirt off of every single disciple's feet. In modern days we can walk on a well-paved road with a nice pair of shoes; so no matter how long you walk, you won't get much dust on your feet. But at that time, people had to walk a long path all day with sandals, which made their feet full of dirt. After a walk outside, you would get a full basin of dirty water when washing your feet. Jesus washed the dirty feet of each of the twelve disciples.

They became anxious about his actions. But no one could dare say anything to this shocking approach by Jesus. Finally, it was Peter's turn, who had often shown a strong ego and hot temper throughout the Scripture. "He said to Him, 'Lord, do You wash my feet?'...'Never shall You wash my feet!'..." Peter could not let Jesus wash his dirty feet. Then, Jesus says: "...If I do not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In other words, if Peter does not receive the love of Jesus, he will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ord. Here we see a principle for our salvation: salvation begins with 'receiving.' The life of faith starts with receiving - that is to say, we need to receive Jesus and his love into our life; otherwise, there is no hope. Although we don't deserve his love and grace, we need to receive what he gives - that is, his love, his washing, his cleansing, and his forgiveness. We are but a sinful, hopeless, dirty, and fragile being who needs Jesus and his love, and we need to humbly ask and receive his grace.

When we look around, there are people who just can't receive anything from anybody.

믿음생활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의 더러운 모습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분의 도움과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남에게 도움 받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염치없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 하는 완강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인간은 도움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엄마의 뱃속부터 우리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는 겸손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스바냐3:17).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해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They have a strict rule that they should not shamelessly receive help from others. Sometimes, they do not or cannot ask for help from God. We need to remember that not being able to receive help from others can be much more shameful than receiving help from others. Human beings are born to receive help; they cannot exist (even from a mother's womb) without receiving help from others. Above all, we must remember that we cannot live a day without the help of the living God. So we must humbly kneel and pray before Him, maintaining our humility before him to always seek his help as his children, because we can only live by receiving his love from our Lord. The Scripture clearly tells us that our Lord has a great delight in us: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Zeph 3:17). The Lord rejoices over us. He waits for us to come before the Lord. He wants us to receive the great love he has for us. Let us humbly come to the Lord and pray: "Lord, forgive our sins. We need you. We cannot live a day without you and your love. Please have mercy on us and wash away all our sins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take us to the presence of the Father God by grace of our *paraclete* the Holy Spirit. In Jesus' name, Amen."

HIS Spotlight



03

Counselor · 상담교사

장정은 상담교사

Ms. JungEun Jang

Q. 자라온 배경과 HIS로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Please share your background and how you came to HIS.

무용수가 꿈이셨던 저희 어머니는, 이루지 못한 꿈을 생각하시며 저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용학원에 등록하셨습니다. 울산에서 무용으로 알아주시는 선생님의 학원은 30분 버스를 타고 매일 2~3시간씩 연습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은 밤 늦도록 연습을 해야 했고, 여러 곳에 공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재능이 있다며 고전무용을 전공하길 권하셨고 전공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코피를 자주 흘려 병원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학원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무용학원을 그만두고 나니 학교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께 피아노를 가르치라고 권유하셔서 그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피아노 전공을 하기 위해 공부하던 중 음악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좋이라며 성악을 전공하길 어머니께 권유하셨고, 저는 성악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매번 두렵고 힘들어, 성악으로 교사 자격증을 따서 계약직으로 중학교 음악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제안으로 교육대학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합격하였지만, 구체적인 목적 없이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세월이 흘러, 지인 중에 기도하는 친구의 권유에 숙명여자대학원 음악치료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음악치료를 수료하고 나니 포항에 갑자기 놀러 온 큰 동생이 상담대학원 시험을 보라는 권유에 한동대 상담대학원에 지원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담대학원을 다니며 울산에 마이코즈 대안학교에 음악강사로 울산청소년 복지센터에 상담 외래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힘들어 2년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정리하고 있던 중, 포항교육청 사이트에 한동글로벌학교 상담교사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My mother, whose dream was to be a ballerina, sent me to a dancing academy when I was in the third grade, thinking of her unmet dreams. To learn from a well-known teacher, it took a 30 minutes of bus ride to get there and I had to practice for 2-3 hours everyday. Ballet recitals required practicing late at night and going to many places for performances. The teacher told me I had talent and convinced me to major in Korean traditional ballet. But while I was preparing, I had to go to the hospital frequently due to nose bleeding. My mother thought this was physically harsh for me and told me to quit the ballet academy.

After I was done with ballet, my homeroom teacher persuaded my mother to teach me how to play the piano, so I learned to play the piano until 11th grade. While learning piano for my major, my music teacher told my mother I had a nice voice and suggested that I major in vocal music. So I majored in vocal music during university. However, I had a hard time singing in front of others, so I got a teacher's certificate and worked as a part-time middle school music teacher. Later, I took a test for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ith a friend. Though she was the one who suggested, I was the one who got in, but without a specific purpose.

As I got married and time flew by, one of my friends said that while she was praying, it seemed that God was leading me to do music therapy. So I completed an expert music therapy course i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fter that, my younger brother came to Pohang and suddenly persuaded me to take a test for HGU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so I took a test and got in.

While attending the graduate school, I worked at Micoze school in Ulsan as a music teacher and also at Ulsan youth welfare center as a counseling instructor. During this time, I met students who did their best amidst difficulties and was able to think more and learn from them.

돌아보니, 저의 삶은 안정적인 편이었으나, 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 본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길 늘 하나님께 기도한 덕분인지, 하나님께서 현재 최고의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상담을 잘 못하는데요?”라고 솔직하게 질문 드렸을 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 지 보고 배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따뜻함으로 얼마나 전전긍긍하시며 애쓰시며 학생들을 돕고 돌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배울 수 있는 한 학기였습니다.

때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다가도 나를 선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아이도 선한 길로 인도해주심을 알기에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게 와서 자신의 귀한 나눔을 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However, working long distances became overwhelming. While I was wrapping up my work of 2 years with students, I got to see an announcement from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recruiting a school counselor.

Looking back, I had a stable life, yet I wasn't completely satisfied because I hadn't made a choice by my own will. But God gave me the perfect opportunity at the right time; maybe because I always prayed for him to lead me to the right direction since I had met God personally in my freshman year at C.C.C.

When I prayed to God honestly, “I am not good at counseling,” I received an answer saying “This is not your work. See and learn how I do the work.” During this semester, I got to see how HIS teachers made efforts to help and care for the students with their talents and kindness. I learned so much from them.

Sometimes my heart aches for those who are hurt but I am also thankful that I can smile because I know God will lead them to the right path as he did me. I thank God for granting this precious time that I can learn from lovely students who come to me and share their unique stories.

Q.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nd what do you expect through it?

저는 아직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일을 통해 어떤 것을 특별히 이루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한동글로벌학교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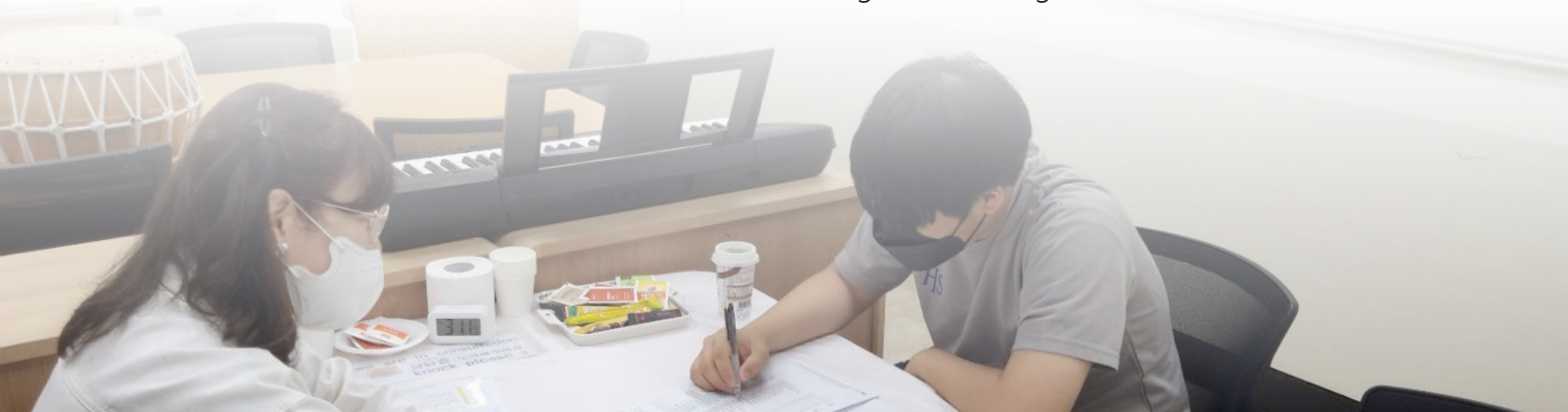
I am a school counselor and continue to learn each day. I have not thought of any particular expectations through my work yet. However, I hope to learn and grow to see God working through HIS in the next semester.

Q.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세요.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1.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 학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법을 매일 삶 속에서 배우고 느끼기 원합니다.
3.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며 늘 힘을 주시고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I pray not to get ahead of God's guidance.
2. I pray that students treasure themselves as ones created by God and learn how to protect themselves in their daily lives.
3. I pray that God protect our teachers' minds and souls and give them strength and comfort.



General News

축사
Congratulatory

사진 기독교학교교육
Dr. Park, Director of
Education Research

심폐소생술 교육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Education

HIS Parents T-Time 수료식

HIS Parents T-Time Closing Ceremony

2022-1 환경 개선

2022-1 Improvements in School Environments

04

By Ms. Yana Ibragimova | 초등 교사 · ES Teacher

심폐소생술 교육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Education



초등 5-6학년 학생들과 중고등 학생들은 특별히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심장 마비 상황일 때 구조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 ① 환자 부르기
- ② 어깨 두드리기
- ③ 119에 신고할 사람 배정하기
- ④ 자동 심장 충격기(AED) 가져올 사람 배정하기
- 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 심폐소생술(CPR) 실시하기

학생들은 자동 심장 충격기와 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5th and 6th graders an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ach had a special training on CPR. They learned about the lifesaving procedures they can perform in case someone near them shows signs of heart failure:

- ① Call the person
- ② Tap them on the shoulder
- ③ Assign someone to call 119
- ④ Assign someone else to bring an AED device
- ⑤ Help the person in need by hands-only CPR until paramedics arrive

The students practiced using AED devices, and they also learned how to do hands-only CPR (uninterrupted chest compressions).





By 김나연 | 학부모 회장

Ms. Na Yeon Kim · Parent President



HIS Parents T-Time 수료식

HIS Parents T-Time Closing Ceremony

2022년 7월 6일(수요일) 학부모교육 HIS Parents T-Time의 제1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2021년 2학기에 멘토이신 박혜경 전 교장선생님과 6명의 전·현직 학부모리더십 멘티들이 시범적으로 멘토링 방식의 학부모교육 T-Time을 진행하였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에 2022년을 1학기 박혜경 멘토님과 1기 교육을 마친 6명의 학부모님들이 멘토가 되어 7개의 소그룹을 개설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을 잘 마치고 33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On July 6, 2022 (Wed), the first HIS Parents T-Time closing ceremony was held in our school. This program was piloted by the former principal Dr. Hae-Kyeong Park as a mentor and 6 former and present parent leaders of HIS as mentees and received positive feedback. In 2022-1, this year's HIS Parents T-Time was formed in 7 small groups. Thankfully, with six parents who had completed the pilot T-Time in 2021-2 as mentors of the groups, 33 parents completed the course with God's grace.

HIS Parents T-Time

- ❖ HIS Parents T-Time이란?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차(Tea)를 같이 하듯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주제들을 함께(Together) 성찰하고(Think) 나누며(Talk) 실천해보는(Try) 프로그램
- ❖ 목적: 한동글로벌학교의 학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사명에 동역하는 기독교학부모로 세워지도록 돕는 프로그램
- ❖ 교재:
➢ “기독교학부모교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한 여정” (2차 개정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17년 12월 15일 발행, 예영커뮤니케이션.



HIS Parents T-Time의 목표는 HIS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혈과 육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고 양성하는 공동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학부모가 되는 것이입니다.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기독공동체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 차(Tea)를 같이 하듯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주제들에 대하여 함께(Together) 성찰(Think) 하고 전략을 짜고 함께 나누며(Talk)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실천(Try) 하는 프로그램인 T-time이 HIS 학부모님들 사이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더욱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The goal of HIS Parents T-Time is for HIS parents to completely deny our flesh and blood and to become Christian parents who please God in order to achieve the common mission of raising and nurturing children as servants in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ith the common goal of establishing an identity as Christian parents and completing a healthy Christian community, HIS parents gather in a small group to have *tea* together in a warm and comfortable atmosphere, to *think* about various topics, share and develop strategies (*talk*), comfort one another, be comforted, and *try* together. We pray that it can take root and develop further among HIS parents.

수료증 증정 Certificates of Completion



By 한병철 | 행정실장

Mr. Byungchul Han · Business Director

2022-1 환경 개선

2022-1 Improvements in School Environments

2022학년 1학기 동안 다음과 같이 환경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During the the first semester of 2022, we had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school environments:



① 초등 미술실 실습용 테이블 및 선반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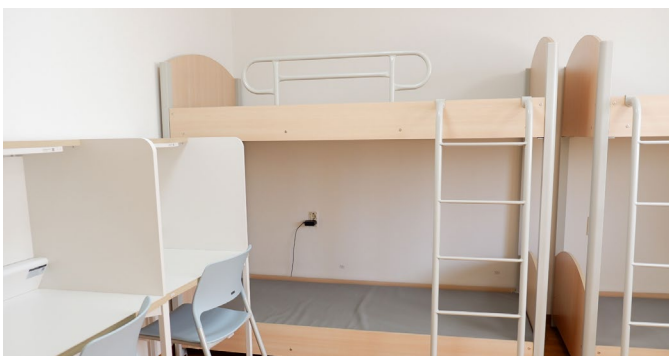
① ES Art room table and shelf replacement



② 비전홀 3층 교실 (7,8학년 교실) 및 특별실 (초등 미술실, Creation Lab) 냉난방기 교체



② VH 3rd floor Classrooms (G7-8th homerooms) and other classrooms(ES Art room, Creation Lab) air conditioner replacement



③ 생활관 냉난방기 교체 및 학생 가구 (1인 책상 및 침대 매트리스) 구입



③ Dormitory air conditioner replacement and student's room furniture (single desk, bed mattress) purchase



④ 건물옥상 및 미션홀 방수공사



④ Roof of buildings and MH waterproof construction

ES News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성교육 강의
Sex Education for Students and Parents

Music Showcase

2022-1 졸업식
2022-1 Closing Ceremony

05

By 박에스터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성교육 강의

Sex Education for Students and Parents



6월 27-28일 동안, 초등 학생과 학부모님 대상으로 여성소망센터에서 방문하신 강사들의 성교육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생명의 신비,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사춘기의 고민 등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여 명의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에 참석하였으며, 가정에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On June 27th & 28th, elementary students and parents had sex education with lecturers from Women's Hope Center. Students had time to learn about the wonders of life, the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the worries in adolescence and much more. About 30 parents visited the school for the lecture and had helpful training about how to do sex education at home that aligns with the child's development.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Music Showcase

By 이상은 | 초등 음악 교사

Ms. Sangeun Lee · ES Music Teacher

지난 6/29 - 7/1(수-금)까지 Music Showcase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022 Music Showcase는 코로나 방역 지침의 강도가 완화되어 3년만에 다시 부모님을 초청하여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더욱 화기애애하고 특별했습니다. 더불어 일상의 감사 또한 고백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Music Showcase에서는 목소리와 여러 악기들, 또 몸으로 찬양하는 워십댄스 등의 순서들로 꾸려졌습니다. 특별히 작곡을 비롯한 하모니카, 칼림바, 클라리넷, 카혼, 중국어 찬양과 같은 흔치 않은 연주 순서는 2022 Music Showcase 시간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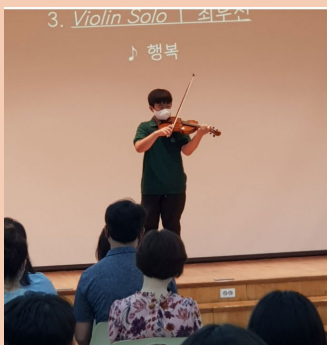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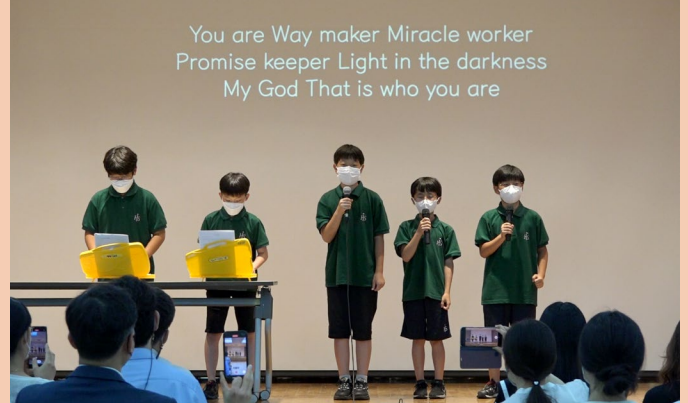
아래의 사진들로 그 현장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n June 29 - July 1(Wed-Fri) Music Showcase was held. The 2022 Music Showcase was more special and intimate in that we were able to invite parents as the audience after three years, due to relieved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It was also a time to share our gratitude for everyday life.

The Music Showcase was organized with voices, various instruments, and worship dance, etc. The unusual performance with composed music, harmonicas, kalimbas, clarinets, cajons, and Chinese hymns lightened up the Music Showcase.

We hope you may feel the scenes through the pictures. Thank you. ^^





By 박에스터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2022-1 종업식

2022-1 Closing Ceremony



7월 12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종업식에서, “잘 놀자”는 백하민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로 학생들이 방학을 즐겁게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이번 학기 동안 모은 사진 슬라이드쇼를 감상함으로써 한 학기의 추억을 간직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Elementary had Closing Ceremony on July 12th. Dr. Baek shared a message to “play well” during summer vacation. Students and teachers watched a picture slideshow which was a good reminder of all the fun memories we had this first semester.

MHS News

WEEK

START D-

END

하트를 위한 기도제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될수 있길

9학년

남은 중학교
생활 즐겁게

보낼수 있길

11학년

12학년

우리 학교를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과

기말시험
잘치고 방학

과학경시대회 수상자

Science Fair Awards

기말고사 소통 게시판

Final Exams Communication Board

2022-1 졸업식

2022-1 Closing Ceremony

06



By Ms. Paj Mouda, 중고등 과학 교사 | MHS Science Teacher

과학경시대회 수상자

Science Fair Awards

① 고등 수상자

홍윤(12A)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을 지 가능하기 위해 '에너지 손실의 상사'를 통해 가설을 세워 실험하였습니다. 가설 검정은 어떤 체계적인 조사에서 유효성 및 신뢰성을 측정합니다. 홍윤의 실험을 통해 적용된 제벡 효과(Seebeck effect)가 태양 전지 패널의 비효율성을 감소하도록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제벡 효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기 도체 또는 반도체 사이의 온도 차이가 두 물질 사이의 전압 차이를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구리 및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은 전기 전도체이며 전압이 적용될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체의 또 다른 특성은 한 쪽을 가열하면, 전자가 가열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① High School Winner

Ian Yoon(12A) did a hypothesis test to determine if his project, The Boss of Energy Loss would have data tha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ypothesis testing measure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outcomes in any systematic investigation. His test would determine if the seebeck effect applied would reduce the inefficiency of solar panels. The seebeck effect is a phenomenon in which a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wo dissimilar electrical conductors or semiconductors produces a voltag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ubstances. Metals such as copper and aluminum are electrical conductors and they have special properties that allow them to produce electricity when a voltage is applied. Another property of a conductor is that if one side is heated,

이 때 발생하는 열은 전자가 양전자와 음전자로 나뉘게 하여, 전기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을 만들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백 효과는 열을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 직접적 방법입니다. 홍윤은 실험과 데이터를 분석한 후, 온도 차이가 실제로 에너지를 유발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된 에너지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태양 전지 패널의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윤의 샘플 데이터는 일반 인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 전지 패널의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수확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the electrons will move away from the heated end towards the colder end. This heat shifts the electrons causing one side to be positive and the other side to be negative, thus creating voltage, a measure of electrical energy. In simpler terms, the seebeck effect is a direct conversion of heat into electricity. After experimenting and analyzing his data, Ian Yoon was able to infer that a temperature difference does indeed cause energy. The harvested energy, though minimal, does improve the solar panel's efficiency. In conclusion, his sample data could actually be applied to the general population and was inde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e hopes to harvest more energy in order to reduce the inefficiency of solar panels.



2 중등 수상자

이예나, 최로아(8A)는 pH 단계에 따라 식물이 어떻게 다르게 자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팀의 가설은 pH의 급수액이 바뀌면, 새싹의 성장에 영향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와 로아 학생은 조사를 통해 많은 식물들은 pH 5.5~6.0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pH 5.0 - 7.5 사이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러나 pH 6.5 이상으로 증가할 시,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영양소와 미량 원소가 잘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액체에서부터 잘 자라지 못하는 액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초, 커피, 물, 녹차, 소금, 베이킹소다. 둘은 콩나물이 중성 pH에서 가장 잘 자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Middle School Winner

Yena Lee and Roah Choi(8A) showed how plants can grow differently with different levels of pH. Their hypothesis was that if the pH of the watering liquids change, then the growth of the sprouts will be affected by it. They researched and found that most plants grow better with an environment with a pH of 5.5~6.0. A lot of plants can grow in an environment within the pH levels of 5.0 to 7.5. However, if the pH level gets higher than 6.5, some nutrients and microelements might not absorb properly affecting the growth of plants. After experimenting, their results showed the best grown to the least: water plant, coffee, water, green tea, salt, baking soda. They concluded that the bean sprouts grow best around a neutral pH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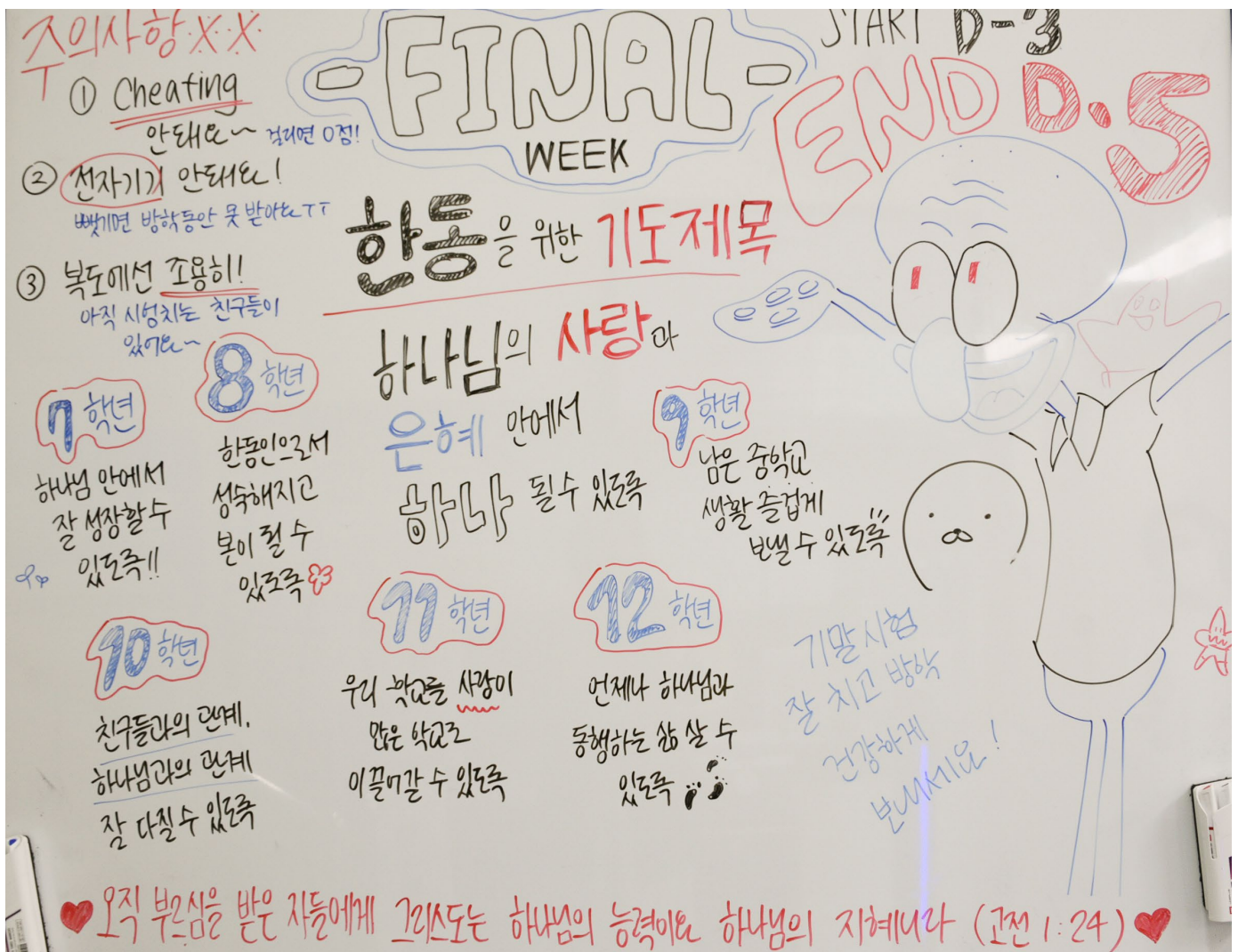
By 윤영실 | 중고등 학생 부장
Ms. Young Shil Yun · MHS Student Life Team Teacher

기말고사 소통 게시판

Final Exams Communication Board

중고등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회가 설치한 소통 화이트 보드에 학년별 기도제목,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약속, 성경 말씀 등을 적어 서로를 격려하며 스스로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With their final exams ahea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rote prayer requests by each grade, promises to keep their honor, Bible verses, etc. on the communication board attached by the Student Council, encouraging one another and forming a culture of integrity voluntarily.



By 최세연 | 중고등 교무 디렉터

Ms. Sei Yeon Choi · MHS Academic Director

2022-1 종업식

2022-1 Closing Ceremony



2022학년도 1학기 종업식이 본교 채플에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전교생이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독상을 비롯한 각종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시상으로 한학기 동안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 중 독서나 미술관 방문 등의 추천사항과 안전상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방학을 통해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고 2학기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7-12th grade students attended the 2022-1 closing ceremony held in our school chapel to give thanks for the first semester. The selecte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ceived various awards, such as extensive reading awards, etc. and students congratulated each other on having done their best. Also, there was an announcement on recommendations for reading or visiting the art museum during summer break and safety guidelines were presented. We hope that our students and teachers enjoy sufficient rest during vacation and prepare well for the next semester.

Dormitory News

공동체 삶을 통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Fellowship of Saints through Community Life (Koinonia)

섬김의 집으로 가는 길 (디아코니아)
Road to the House of Service (Diaconia)

삶의 통합성 (신앙과 학업의 일치)
Integrability of Life (Unity of faith and study)

말씀 선포 (케리그마), 가르침과 권면 (디다케)
Proclamation of the Word (Kerigma),
Teaching and Exhortation (Didake)

시설 리모델링
Remodeling Facilities

07

By 김경란 | 생활관

Ms. Kyeong-Lan Kim · Dormitory Director

공동체 삶을 통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Fellowship of Saints through Community Life (Koinonia)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_ 고전 1:9

친구에게 꽃 반지를 엮어주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God is faithful, through whom you were called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_ 1 Cor 1:9

Weaving a flower ring to each other; though we are different, together we form the body of Christ.



섬김의 집으로 가는 길 (디아코니아)

Road to the House of Service (Diaconia)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생활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활관으로 가면 연약한 지체를 섬겨야합니다. 편한 삶은 아니지만 주님을 닮아가기에 좋은 훈련의 집입니다.

The way Jesus took was the way of serving others. This is the way to the dormitory. In the dormitory, we have to serve the weaker ones. It may not be comfortable, but we can learn inside the community.



삶의 통합성 (신앙과 학업의 일치)

Integrability of Life (Unity of faith and study)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큐티와 학업을 수행합니다. 학업을 수행 하기 전에 먼저 큐티를 한 뒤 말씀을 의지하여 각자 학업을 수행합니다.



At the set time, we have quiet time reading the Bible and performing our studies daily. Before studying, we meditate on the Word of God and learn to depend on God in our studies.

말씀 선포 (케리그마), 가르침과 권면 (디다케)

Proclamation of the Word (Kerigma), Teaching and Exhortation (Didake)



생활관 주일 열린예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과 권면이 있습니다.



This shows a Sunday open worship service at the Dormitory. We hear the Word of God through teachings and exhortations.

시설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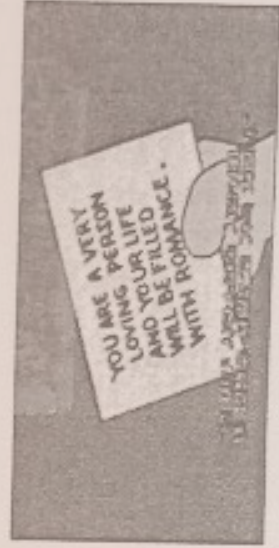
Remodeling Facilities



지난 겨울 방학 때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에어컨, 도배, 커튼을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Last winter vacation, the beds, desks, chairs, wardrobes, air conditioners, wallpapers, and curtains were replaced. During this summer break, we will be remodeling the bathrooms and shower rooms.

Counselor's Office News



다만 이거는 미...

또래 상담동아리 / peer

- 바나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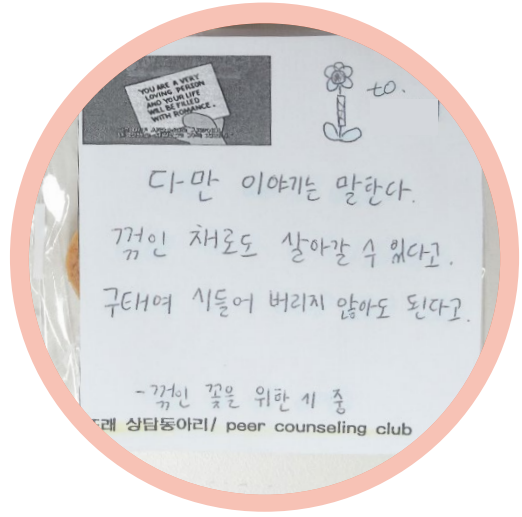
또래 상담동아리 활동

Peer counseling club activity

방학중 상담안내

Notice for counseling sessions during school break





By 장정은 | 상담 교사
Ms. JungEun Jang · School Counse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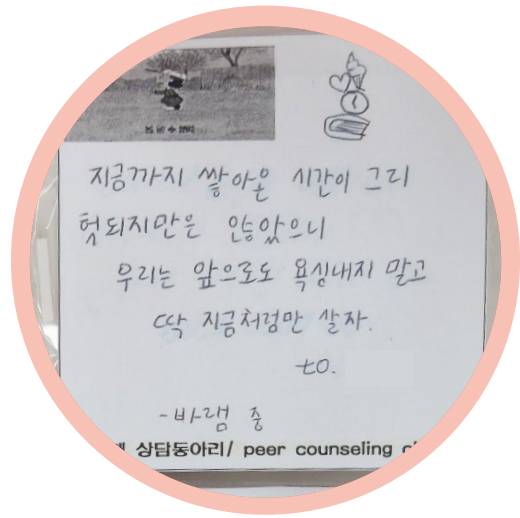
또래 상담동아리 활동

Peer counseling club activity

- ❶ 또래상담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활동으로 입시를 앞둔 12학년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응원하고 화이팅하는 사랑의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 ❷ 방학 중 친구들에게 공감의 대화로 위로 편지를 쓸 예정입니다.

- ❶ Delivered notes of encouragement and small presents to 12th graders before their final exams to support them as peer counselors, thinking of peer counselors' attributes and actions
- ❷ Plan to write letters expressing empathy to friends during the vacation





방학중 상담안내

Notice for counseling sessions during school break

Zoom 상담 진행

Zoom counseling sessions

방학동안 상담이 필요한 학생 중 신청자 대상으로 Zoom 상담 진행합니다.

- 신청자 중 5명이내 선별하여 Zoom 상담
- 회기 4~ 5회기
- 신청방법 상담교사 (jungeunjang@his.sc.kr)

Zoom counseling sessions will be held for students who require counseling during school break

- For no more than 5 students selected from applicants
- Sessions 4-5 times
- Apply Counselor (jungeunjang@his.sc.kr)

TCI 검사 기반 Zoom 상담

Zoom counseling based on TCI test

TCI 검사는 기질과 성격을 통해 사고나 감정양식, 행동 패턴, 대인관계 양상 등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TCI 검사 신청한 학부모님 자녀분 중 검사해석을 받지 못한 학생들 대상으로 방학중에 Zoom 상담으로 검사해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대상 TCI 신청한 학부모 자녀 중 검사해석을 받지 못한 학생
- 일시 개별 연락하여 시간을 정함.

TCI test is a test to check emotions and behavior patterns, personal relationship aspects with temperament and character. We will be providing TCI test interpretation counseling sessions via Zoom during school break for those who applied but did not get TCI test interpretation.

- For Students whose parents applied for TCI test but did not get interpretation
- Time Will be set after individual contact

Library News

다독상 시상

Reading Excellence Award

여름 방학 추천도서

Book Recommendation for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독서과제

Summer Vacation Reading Assignment

여름 방학 도서관 이용 안내

Library Use during Summer Break

09

By 이희정 | 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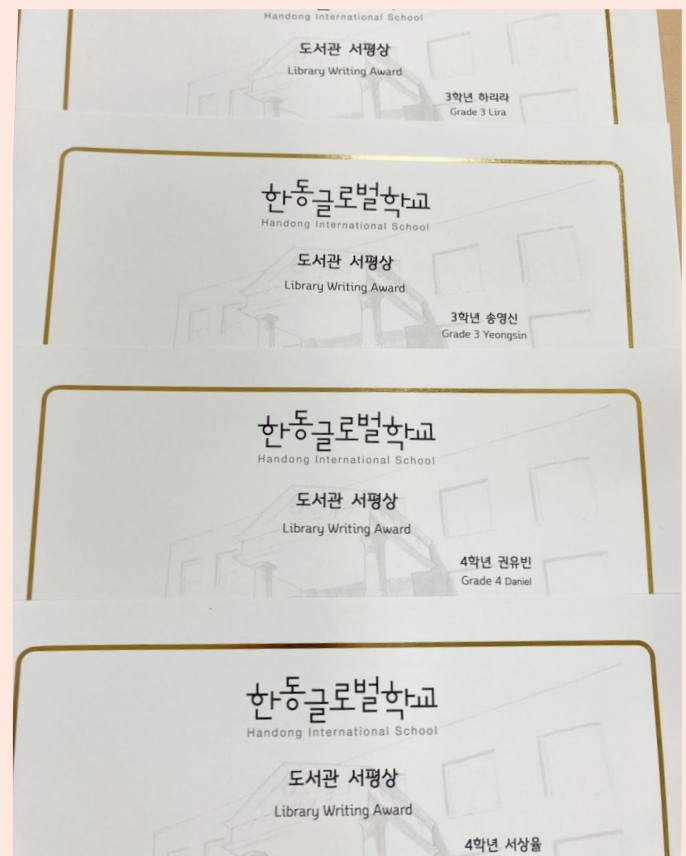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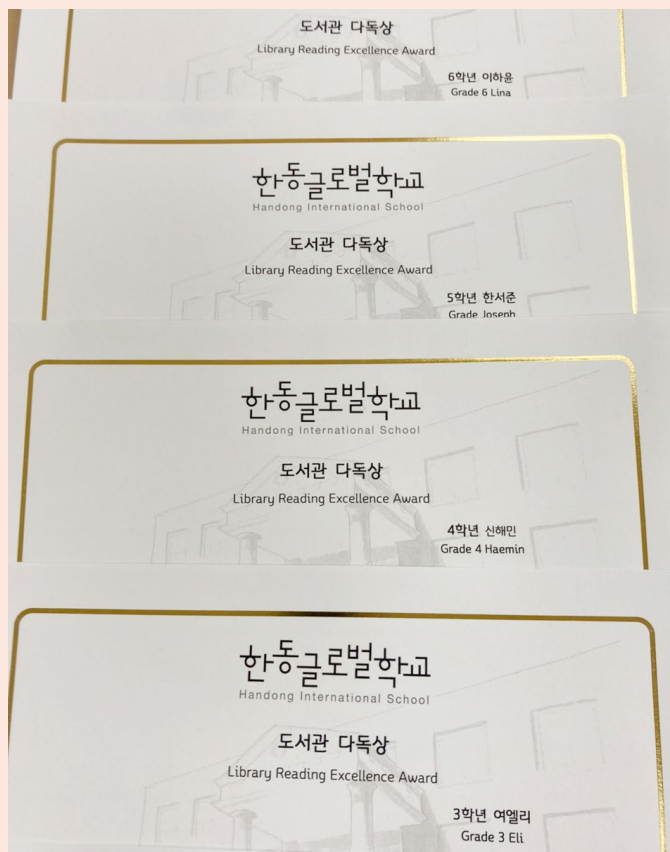
Ms. Hee Jung Lee · Librarian

다독상 시상

Reading Excellence Award

한 학기 동안 책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읽은 학생들과 서평을 보내준 학생들을 선정해 다독상을 시상했습니다. 초등 다독상과 서평상은 학년별 1명씩 시상하였고, 중고등에서는 지난 겨울방학 독서 과제와 이번 학기 서평과 다독자 순위를 종합해서 선정했습니다.

We have chosen students who have diligently read books and submitted book reviews during this semester. In ES, one student from each grade received a Reading Excellence Award and a Library Writing Award for book reviews. In MHS, students were awarded based on last winter vacation's reading assignment and this semester's book reviews and reading performance.



① 초등 수상자

ES Awards

다독상 Reading Excellence Award

G1 이아인 Daniel | G2 박승 David | G3 여엘리 Eli | G4 신해민 Haemin | G5 한서준 Joseph | G6 이하운 Lina

서평상 Writing Award

G3 하리라 Lira · 송영신 Yeongsin | G4 서상울 Roger · 권유빈 Yoobin | G5 송영준 Yeongjun | G6 주소윤 Kaylee

② 중고등 수상자

MHS Awards

이름	Name	순위	Ranking
유승주	Seungju Yoo	대상(1위)	1 st Place
이한	Han Lee	금상(2위)	2 nd Place
이지민	Jimin Lee	금상(2위)	2 nd Place
문하늘	Haneul Moon	은상(3위)	3 rd Place
박서현	Seohyeon Park	은상(3위)	3 rd Place
이은우(A)	Eunwoo Yi	은상(3위)	3 rd Place
강수하	Suha Kang	동상(4위)	4 th Place
유성연	Sungyeon Yoo	동상(4위)	4 th Place
임주형	Juhyung Lim	동상(4위)	4 th Place
조하경	Hakyong Cho	동상(4위)	4 th Place
이예나	Yena Lee	대상(1위)	1 st Place
최찬희	Chanhee Choi	금상(2위)	2 nd Place
임소망	Somang Lim	금상(2위)	2 nd Place
권주은	Camille Jueun Kwon	은상(3위)	3 rd Place
최찬경	Chankyung Choi	은상(3위)	3 rd Place
한서현	Seohyun Han	은상(3위)	3 rd Place
강다연	Dayeon Kang	동상(4위)	4 th Place
	Zion Ray Collier	동상(4위)	4 th Place
이해인	Haein Lee	동상(4위)	4 th Place
김수하	Suha Kim	동상(4위)	4 th Place

여름 방학 추천도서

Book Recommendation for Summer Vacation

- ❶ 한 작가 (좋아하는) 깊이 들어가 보기 - 관심있는 작가(톨스토이, 이어령 등) 의 여러 작품을 만나는 것도 좋은 독서입니다.
- ❷ 다음학기 교과 연계 도서들을 여유 있게 미리 만나 보기 - 루쉰의 아Q정전, 카프카의 변신, 줌머씨 이야기, 호질, 양반전 등
- ❸ 우리 도서관에는 기독교 영성 관련 도서, 창비 청소년 신간도서, 세계문학고전, 다음학기 교과 연계 도서들이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 ❶ Go deep inside your favorite author - encountering various books of the author you are interested in(Tolstoy, Lee O-young, etc.) is a good way to read
- ❷ Meet the books that go hand in hand in advance for the next semester - The True Story of Ah Q(Lu Xun), The Metamorphosis, The Story of Mr. Sommer, Hojil, Yangbanjeon, etc.
- ❸ In the HIS Library, we have placed books about Christian spirituality, new books from Changbi Publishers, world classical literature, and books related to textbooks for the next semester.



여름 방학 독서 과제

Summer Vacation Reading Assignment

캠퍼스 산책길, 샛노란 루드베키아가 벌써부터 시작된 무더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여름이지만 가까운 미술관이나 도서관을 찾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고, 앉을 수 있을 때 앉고, 기댈 수 있을 때 기대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지요. 여름 방학, 책에 기대어 그림에 기대어 일상의 소중함을 담아 두고 나중에 가파르거나 바쁜 일상을 만나면 한 장면씩 꺼내 보기로 해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두 손 모읍니다.



The yellow coneflowers blooming in our campus are foretelling summer. The hot weather makes it prone to get worn out during vacation, so we recommend you to visit the local art museum or library and enjoy a time of refreshment. It is said that stopping, taking a seat, and reclining when you can, is taking a true rest. Let's enjoy our everyday life reclining in a book or a picture and taking notes of special moments, and look back into it when we go back to our busy lives. We pray for a healthy and beautiful time this summer.

감상문, 서평, 영상 작성 방법

① 초등 1편

- 영화 감상화 그리기, 예술, 영성 관련 책 읽고 서평 쓰기 (손글씨. 그림 혹은 독서종합시스템을 통해 입력)

② 중고등 2편

- 영성도서 1권 자유 도서 1권 미술관, 도서관 [방문 후기, 감상문, 작품 비평문]을 독서종합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 편입생 등 독서종합시스템 가입이 어려운 학생은 자유롭게 작성해서 이메일 발송하거나 개학 시 제출하면 됩니다.
- * 여름 방학 과제는 2학기 다독상 선정에 반영됩니다. 여유 있는 방학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지요.

Creating a report, book review, video

① ES: 1 required

- Submit book reviews categorized as drawing famous paintings, Art, Spirituality (Handwriting, Drawings or submit to : Reading Education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② MHS: 2 required

- Spirituality books 1, Free choice 1 Art museum, Library [Visitor's review, Report, Artwork review] Submit : Reading Education Comprehensive Support
- Transfer students, etc., who have trouble logging in may submit when school starts or send by email.
- * Summer vacation assignments will be an evaluation element when choosing the awards for the next semester. We recommend using your free time during vacation.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Submit your reviews in the following website: <https://bit.ly/3s3aIKb>



여름 방학 도서관 이용 안내

Library Use during Summer Break

안녕하세요,
여름 방학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을 축하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학교 도서관을 아래와
같이 개방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다만, 초등 과정 학생은 학부모님과 동행 시에만
도서관 이용(도서 대여, 반납)이 가능합니다.

① 개방 지정일

- 7월 19일(화) | 7월 20일(수)
- 7월 26일(화) | 7월 27일(수)
- 8월 2일(화) | 8월 3일(수)

② 운영 시간

- 오전 10:00~ 12:00,
- 오후 13:00~15:00

*점심 식사 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③ 문의처

054-260-1742 (HIS 도서관)

Hello,

may God bless you as you start the summer break.

We are happy to announce that the HIS library will be available for our students over the summer vacation during specific hours. Please note that elementary students must be accompanied by their parents when using the library (whether to return or borrow books).

① Library Operation Dates during Summer Break

- July 19, 2021 (Tue) | July 20, 2021 (Wed)
- July 26, 2021 (Tue) | July 27, 2021 (Wed)
- August 2, 2021 (Tue) | August 3, 2021 (Wed)

② Operating Hours

- 10:00 to 12:00
- 13:00 to 15:00

*Library will be closed during lunch time (12:00-13:00)

③ Inquiry

054-260-1742 (HIS Library)

July 7, 2022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Nurse's Office News

온열질환 예방

Prevention of hyperthermia

여름철 식중독 예방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during summer

10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방학동안 건강하게! 안전하게!

Staying healthy during the vacation! Safely!

무더운 더위와 함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과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ummer vacation has started with extremely hot weather. We will learn about prevention of hyperthermia and food poisoning for a safe and healthy vacation.

온열질환 예방

Prevention of Hyperthermia

① 정의

-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온열에 취약한 대상자 : 노인, 어린이, 심뇌혈관 질환자, 고·저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질환자

① Definition

- A disease that occurs when exposed to heat for a long time.
- Symptoms of Hyperthermia : **Headache, dizziness, muscle spasms, fatigue, decreased consciousness, etc.**
- Vulnerable to heat: Seniors, children, deep brain vessels patients, high/low blood pressure patients, diabetics, kidney disease patients



두통
Headache



어지럼
Dizziness



근육경련
Muscle spasms



피로감
Fatigue



의식저하
Decreased consciousness



② 분류

② Classification

구분 · Category	주요 특성 · Main Characteristics
열사병 Heat stro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 (>40°C) • High temperature (>40°C)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 Dry and hot skin (or gets sweaty) •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중추신경 이상) • May lose consciousness (Central nervous system abnormality) <p>※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p> <p>※ Failure to take prompt action may result in death</p>
열탈진 Heat exhau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을 많이 흘림 (≤40°C) • Sweating profusely (≤40°C)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탈수 및 전해질 소실) • Lack of strength and extreme fatigue (dehydration and loss of electrolytes) • 창백함, 근육경련 • Pallor, muscle spasms
열경련 Heat cr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Muscle spasms (shoulders, arms, legs, abdomen, fingers)
열실신 Heat syn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지럼 • Dizziness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뇌허혈 상태) • Temporarily unconscious (cerebral ischemia)
열부종 Heat ede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 Swollen hands, feet or ankles
기타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불명의 열 및 빛의 영향 • Unknown heat and light effects

3 온열질환 예방

*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2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 ~ 오후 5시)에는 휴식 취하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3 Prevention of Hyperthermia

* Three tips to prepare for heatwave

1 Stay cool

- Take a shower frequently
- Block sunburn when going out (sunshade, hat)
- Wearing loose clothes with bright colors

2 Drink water often

- Drink water regularly and often even when not thirsty

*Kidney disease patients should consult a doctor about drinking

3 Rest during hot times of the day

- Take a break during the periods that are most hot (12: 00 pm - 5: 00 pm)

*If the weather suddenly becomes hot, check your health and control your activity intensity

4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입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4 First aid for Hyperthermia!

* If conscious

- Go to a cool place
- Wear loose clothes and cool your body
- Drink water
- Call 119 in case of no improvement

* If unconscious

- Request a paramedic (Call 119)
- Move him/her to a cool place
- Help him/her wear loose clothes and cool his/her body

*If the person drinks when unconscious, he/she may suffocate.

여름철 식중독 예방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during summer

①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① What is Food Poisoning?

It is an infectious or toxic disease caused by microorganisms or toxic substances that are harmful to the human body when eating food.

② 주요증상

② Main Symptoms



설사
Diarrhea



구토
Vomiting



복통
Abdominal pain



발열
Fever

* 식중독 예방을 위한 6가지 실천수칙

* 6 Tips to Prevent Food Poisoning



비누로 30초 이상
More than 30 seconds with soap



냉장 5°C 이하, 냉동 -20°C 이하
Under 5°C (refrigerated),
under -20°C (freezed)



물은 끓여서
Use boiled water



음식은 속까지 익혀서
Fully cook to the inside



식재료별 칼 / 도마는 따로
Separately according to food



조리기구, 식재료는 깨끗이
Keep cookware, ingredients clean

Creative Corner

고전 읽기 프로젝트
Classical Literature Projects



고전 읽기 프로젝트

Classical Literature Projects

고등학교 고전 읽기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를 읽고 그 중 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논평한 후에 동시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추출하여 소설,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하여 그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중 두 학생의 작품 및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By 백하민 | 고등 고전읽기 교사

Dr. Hamin Baek · HS Classical Literature Teacher

In the high school classical literature class, after reading The Iliad and the Odyssey, each student selected a topic, critiqued it from a Biblical perspective, drew out a message suitable for contemporary people, and then expressed the message in various forms of artwork such as novels, pictures, and music that they created. The following are two students' projects.

오딧세이아 : 그림

The Odyssey : Painting



By 유승주 | 11C · Ms. Seungju Yoo

오딧세우스가 긴 시간 동안 항해하며 그리워했던 것은 그의 아내가 있고, 그가 직접 지었으며, 온전히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작품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양털로 만든 침대, 땅에 굳게 박힌 올리브 나무, 그리고 오딧세우스를 위해 슬퍼하는 페넬로페로 표현했습니다.

Here you see Odysseus's wife and a place that he made himself and where he could fully rest. These are the things he missed while sailing for a long time. In the picture, I drew these three elements to express his feelings: a bed made of wool, an olive tree firmly rooted in the ground, and Penelope lamenting for Odysseus.

흰색 양털로 만든 침대는 편안함,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오딧세우스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도 편안한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안함과 안정감은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자기가 만든 올리브 나무 침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단단하게 땅에 뿌리를 내린 올리브 나무는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오딧세이아 내에서 올리브 나무는 그의 저택을 지탱하고 자신이 직접 다듬은, 본인이 이룩한 업적이자 자신이 그 장소에 주인으로서 소속되어 있다는 상징입니다. 오딧세우스의 귀향을 완전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소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가 돌아온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있지만 이는 오딧세우스가 손님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저택의 주인 - 집에 돌아온/돌아와야 할 사람 - 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집은 우리가 떠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은 내가 속한 자리(위치)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 탄생합니다. 그 소속감과 안정감과 관계가 남아 있는 한, 집은 내가 잠시 떠나 있더라도 그 자리에 남아 있고 늘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The bed made of white wool implies comfort and peace. When Odysseus came home, though he was able to recline, he didn't because the comfort and peace could only come from the olive tree bed he had made. The firmly grounded olive tree stands for a sense of belonging. In the Odyssey, the olive tree is a symbol in which it holds the foundation of his house and that he belongs to the place as the owner through his work and accomplishment. The element that makes his return to home complete is his wife. Though she is in sorrow because she does not know that he has come yet, this gives meaning that Odysseus is not simply a guest or a traveler but the owner of the house - who has to come / has come back home.

Our home does not disappear even though we are away from it. Home is made when I find a stable position or have a relationship with people. As long as the sense of belonging and relationship remains, though I may leave for a while, it will still be there waiting for me.

오딧세이아 : 음악

The Odyssey : Music

By 홍준화 | 11C • Mr. Joonhwa Hong



들으러 가기 | Listen to Music

<https://bit.ly/3P8PEv3>

이 음악을 제작하면서 오딧세우스가 항해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오딧세우스가 항해 중 경험한 많은 역경과 고난을 힘차게 이겨내는 것을 표현해 보고 싶었다. 메인 코드 진행에서는 신나고 발랄한 느낌을 주고 메인 멜로디도 최대한 긍정적인 느낌으로 만들었으며 바이올린을 스타카토로 사용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려고 하였다.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오딧세우스를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I pictured Odysseus' voyage for this project. In my song, I wanted to express the feelings of Odysseus passionately overcoming multiple difficulties while sailing. I made the main chords lively and active to give a positive atmosphere with the violin played in staccato. We also meet difficult times during our lives. When people listen to this song, I hope they are able to overcome them while thinking of Odysseus.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